

경건한 아버지

에베소서 6:1-4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께 순종하라

얼마 전 저는 몇몇 물리학자들이 출연한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빅뱅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빅뱅 때 생성된 은하들이 이제서야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 거리의 빛이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은하들이 이제서야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년, 우주의 시작, 시공간의 창조와 같은 개념들은 우리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화는 결국 이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우주의 시작에 대해 과학계에서든, 신학계에서든, 철학계에서든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만약 빛이 빅뱅 때 창조되었고, 우리가 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라면—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빛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주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창조 이전에 과연 무엇인가가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토마스 목사님은 아버지의 날 설교에 왜 창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까?" "이번에는 또 어떤 토끼굴(rabbit hole)로 들어가시는 걸까?" 사실 과학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거의 모든 인간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실제로 빅뱅 이전에 존재했던 것의 흔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우리의 눈이 빛을 통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실제로 무엇인가가 존재했다는 것을 압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가 존재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의 다른 문화들이 믿어 온 신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시며, 다신교의 신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삼위일체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고자 할 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에 대한 증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창조되고, 지구가 창조되고, 여섯째 날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주 창세기 개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가

인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삼위일체 안에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성자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이며, 또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공부와 여러 차례의 나눔을 통해 이야기해 왔듯이, 아버지는 가정을 지배하는 보스가 아니라 가정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따라서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이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종과 순종이 우리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의 핵심이며,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맺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제가 늘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의 순종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버지가 완전히 틀렸어도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기도문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 창조 세계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지금 이곳은 아직 천국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듯이, 아버지께 순종하라는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들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이전 세대의 아버지들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삶에서 아버지께 순종했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아시아계 미국인 갱 (깡패) 문화는 1980년대에 크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화가 형성되던 1980년대 후반에 십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갱 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옆머리는 아주 짧게 밀고, 뒷머리는 뒤로 넘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제 아버지는 제가 그런 머리를 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갱스터 머리를 하고는 절대로 우리 집 문턱을 넘지 못할

줄 알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왜 그런 머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신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머리를 한 젊은 아시아계 남성은 모두 갱스터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에 머리를 자르면서 저는 미용사에게 스킨 페이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던 스킨 페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 그 명령의 본질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단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올바르지 못한 삶의 방식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머리 스타일을 하는 저는 아들로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아버지로써의 불완전함 가운데 왜 그렇게 스킨 페이드에 민감하셨는지 제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로써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저는 갱스터 같은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갱스터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고, 저는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믿는 분이 아니셨지만, 결국은 제가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머리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질은 제가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또는 그분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지어 믿지 않는 아버지들조차도 우리에게 경건한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얽혀 있고 불완전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주로 머리를 자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자신도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인도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께 순종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과 자녀들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순종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공경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은 거의 출애굽기 20장 1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매우 특별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십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이 함께 주어진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형통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교제와 소망이 가득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을 이끄는 영적 가장인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종종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혼동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respect)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룬 성취를 기준으로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경기를 뛰여 본 코치를, 한 번도 뛰여보지 않은 코치보다 더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며 지혜로운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아버지들도 그러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공경(honor)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넘어서,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은 보통 누군가의 화려한 경력의 마지막에 수여됩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특별히 기여할 것이 없을 때에도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공경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이며, 바울도 같은 단어를 인용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를 실망시켰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족함과 성취, 죄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아버지이든 나쁜 아버지이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며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힘들 때나 졸을 때나 늘 여러분 곁에 있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남성에게 기대하시는 경건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삶 속에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념비는 아버지를 숭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올 세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 아버지께 대한 간증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자신의 존재 이유의 전부로 이상화하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도록 돕는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묵묵히 수고하는 수많은 아버지들을 기억하고 공경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도록 우리 자녀들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아버지가 여러분과 가족을 떠났다면, 만약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나 도박 중독자여서 집을 잃게 만들었다면, 만약 아버지가 여러분을 학대했다면, 여러분이 세워야 할 기념비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계속 두둔하거나 용납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용서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었지만,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죄와 어쩌면 그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와 부족함은 자녀들에게 상처와 흉터를 남겼고, 그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면, 그를 용서하고 아버지로서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희망과 자유의 씨앗을 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특별히 아버지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화해를 향한 첫걸음을 어떻게 내딛을 수 있을지, 관계를 잇는 다리를 누가 먼저 놓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여러분과 아무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화해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공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함과 **bitterness**(쓴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여러분은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여러분은 쓴 마음과 상처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은 삶 동안 풍성한 형통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화해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공경하려는 마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의 삶으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에,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바울은 모든 아버지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더 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6: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가운데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아버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많은데, 왜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울은 자녀들에게 정욕을 일으키지 말라거나 질투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분노(anger)를 일으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와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상처들은 분노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조차도 분노와 격노에 기초하여 전략을 세우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조차도 분노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분노와 격노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의 전투를 준비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의 싸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전쟁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단지 감정 조절을 가르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심리적인 평안을 가르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전투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이 세상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 속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갖추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며, 영적 전쟁을 싸우는 영적 용사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시편 127:3-5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녀들을

통해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을 준비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단지 좋은 직업과 성공적인 경력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는 훈련은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특히 어린 아들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많은 남성들이 분노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분노와 폭발적인 화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상처와 죄를 만들어 낼까요? 분노는 세대를 통해 전달됩니다. 세대적 죄는 실제입니다. 아들을 때리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때리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만들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때리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자신의 수치와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자녀를 훈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자신의 분노를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죄 많은 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분노 또한 다루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Imago Dei* 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는 것은 분노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즉,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 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여,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자녀를 둔 아버지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과 미래의 아버지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써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들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전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많은 부를 누렸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시대이며, 우리는 인공지능(AI)에 점점 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혁명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날 세상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아버지가 되는 일은 언제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남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람이 되는 데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남편으로서 실패했고, 또한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들이 경건한 아버지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그들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들을 공경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분노가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